

[TV]

TV 26일

★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
비밀 수 있습니다.

Table with columns for channels (KBS1, KBS2, MBC, KBC/SBS, EBS) and program listings for various time slots.

“이제 배우가 뭔지 알 것 같아요”

영화 '가족의 탄생'서 모녀의 애증관계 열연한 배우 공효진

공효진(26)은 최근 개봉한 영화 '가족의 탄생'(감독 김태용, 제작 블루스톤)을 이렇게 기억했다. 세 편의 에피소드 중 엄마와 딸의 애증의 관계를 표현한 두번째 이야기를 책임진 그는 이 영화를 계기로 자신의 지향점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했다.

“사람을 미화하지 않고, 있는 그대로 표현한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”는 그는 “이제 배우로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”며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.

자신보다는 자신에게 믿음을 준 김태용 감독이 빛을 발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하는 공효진의 모습에서 '성숙'이란 단어가 떠올랐다. 신세대 아이러프로 존재했던 그에게서 낯설면서도 넉넉한 배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이 영화의 큰 수확 중 하나다.

공효진은 “우리 영화(그는 꼭 '우리'라는 표현을 썼다)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'피 터지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'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”고 했다.

김태용 감독은 공효진의 데뷔작 '여고괴담2-두번째 이야기'를 연출했다. 김 감독이 “선경은 효진이 너를 두고 쓴 배우”라고 말했다. 때로 뒤, 감독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”고 통통스럽게 반응했다.

그렇게 읽어온 시나리오 속에서 선경은 공효진 스스로 낯설게 느껴졌다. “사람들은 적절적이고 잘할 것 같다고 여기시잖아요. 그런데 선경은 도대체 왜 그렇게 엄마와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가슴에 못박는 소리를 했으면서도, 그런 엄마와의 이별에 쓸쓸해 하는지, 대중이 보지 못한 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” 나중에 보니 이 영화에 참여한 배우 면면이 다 그러했다.



이 시대의 어머니상이라는 고두선 선배에게서 '여자'를 뽑아내고, 딱 부러지는 듯한 문소리 선배는 순수처럼 나와요. 엄태웅 선배는 또 어땠어요. 반듯한 이미지를 한순간에 뽀글뽀글하게 만들었잖아요. 코믹한 이미지가 강한 태규는 사랑에 목말라하는 가엾은 청년이 됐어요. 하하” 이 과정에서 감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느꼈다.

“생각해보면 우리 영화에 참여했던 배우들이 모두 자기가 주인공이라 생각하고, 모두 자기 캐릭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.”

리빙TV Living TV 출발 주말여행-경남 남해-진주(오전 9시)
매주 한 지역을 여행지로 선정해 그 지역의 볼거리와 먹을거리, 숙박지를 함께...
특히 1998년부터 임진왜란 역사박물관으로 재탄생한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임진왜란사(史)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.

케이블·위성TV 26일

Large table listing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(YTN, MBC, KBS, etc.)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.

TBN 교통방송
www.kjbbbc.com
www.kjbbbc.com
www.kjbbbc.com